

같이 보기

: 미디어 속 직업병

영화 <올드마린보이>는 가족을 위해 생사의 경계선을 넘어 바다로 뛰어드는 재래식 잠수부 박명호 씨의 삶을 관찰한 다큐멘터리다. 잠수병으로 동료 여럿을 잃고 그 역시 생사를 오가는 공포를 경험해왔지만, 소중한 가족을 위해 박명호 씨는 오늘도 바다로 향한다.

글 편집실

거센 물살과 싸우는 잠수부에게 나타내기 쉬운 병

영화 <올드마린보이(2017)>를 통해 본
잠수병



가족을 위해 아버지는 오늘도 거친 바다에 간다

사랑하는 아내, 두 아들과 탈북한 박명호 씨는 강원도 고성 바닷가에 자리 잡았다. 그의 직업은 10명 중 5명은 포기하고, 3명은 죽고, 1명은 아프고, 단 1명만이 살아남는다는 머구리, 즉 잠수부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다도, 잠수병도 아닌, 당장 내일 가족들이 먹을 쌀이 없어지는 것이다. 가진 것은 몸 하나뿐이기에 몸에 좋다는 것은 모조리 섭취하고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며 오늘도 그는 바다 속으로 몸을 던진다.

박명호 씨는 60kg의 잠수복을 입고 산소 공급 줄 한 가닥에 의지해 대한민국 최북단, 수심 30m의 바닷속에 들어가 문어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해 생계를 꾸린다. 나이 50이 되는 동안 잠수병으로 소중한 동료 여럿을 잃고 자신 역시 죽음의 문턱에 이른 공포를 경험해왔지만, 소중한 가족을 위해 물질을 중단할 수 없다.

<올드마린보이>는 아름다운 강원도의 바다 마을 풍경과 최북단의 신비로운 심해 속만큼이나 아름다운 가족애를 그린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우리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헌사와 같은 작품”이라고 설명한 진모영 감독의 말에 비쳐지듯 박명호 씨는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시대의 가장을 투영한다.

박명호 씨와 같은 베테랑 머구리 잠수부도 쉽게 피할 수 없는 직업병이 있으니, 바로 ‘잠수병’이다. 60kg가 넘는 쇳덩어리를 둘러도 온몸을 짓누르는 수압 때문에 잠수병에 걸리기 쉽다.

바닷속 또 다른 위협, 잠수병

잠수부같이 물속에 오랜 시간 있는 사람들은 ‘잠수병’에 걸리기 쉽다. 잠수병은 체내로 들어간 질소기체

가 높은 수압으로 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녹아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체내 질소기체가 갑작스럽게 기포를 만들면서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때 몸에 강한 통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통증은 호흡기뿐 아니라 림프계, 근골격계 등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잠수병 증상은 물속에 들어간 직후로부터 수 시간 내에 발생하지만 수일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잠수병을 진단하는 데는 잠수 병력과 증상이 중요하다. 혈액 검사와 관절 X-ray 사진에서는 통상적으로 잠수병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질환 발생 직후에는 즉각 치료해야 하며 잠수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작은 증상이라도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잠수병 치료 때는 재가압 요법을 이용한다. 재가압 요법은 대기압보다 높은 기압 환경을 만들어 100%의 산소를 일정 시간 동안 계속 흡입하는 고압 산소 치료 요법을 일컫는다.

잠수병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보통 60m 수심에서 30분간 작업한 후 수면으로 복귀할 때 적절한 감압시간은 70여분으로 알려져 있다. 🐬

잠수병이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대리석 형태의 피부질환, 관절통, 임파선 통증, 난청 등이 나타난다.
- 심할 경우 의식소실, 마비, 폐 파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잠수병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은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TIP

잠수병, 이렇게 예방해요!

- 해수면 상승시에 1분에 9m의 속도로 가급적 천천히 상승한다.
- 잠수 전후에 다량의 수분을 섭취한다.